

故 李殷晟 學會長 追慕辭

朴 星 來

‘해시계 박사’ 李殷晟교수가 1986년 6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크지 않은 키에 벗어진 머리, 두 박한 손마디에 첫소리같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李교수가 임기 2년의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 주기 직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만 71년을 이 세상에 살다 간 그가 科學史, 그 중에도 특히 한국천문학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50대에 들어선 뒤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근 15년 남짓 동안에 남긴 업적은 그 전 50년 동안의 공헌을 뛰어넘는 뚜렷한 것이었다.

우리들이 會長으로 모시고 있던 李殷晟교수는 고향이 忠南 天安, 좀더 상세히 말하면 天原郡 豐歲面 두남리 90번지였다. 아버지 李英夏씨는 서울 대지주의 마름으로 漢文을 1년쯤 배웠을 정도여서 첫 아들이 커서 동네 구장이나 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李씨 집안은 뒤에 4남 3녀를 갖게 되었는데 李교수는 1915년 9월 21일 7남매의 맏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2년간 한문을 배운 뒤 35리나 떨어진 廣德小學校에 진학했다.

6학년 때 16세의 李殷晟은 두 살 위인 黃泰淳여사와 결혼(1930년 5월), 1934년 첫 딸을 낳고 그 뒤 2남 6녀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나 소학교를 졸업한 소년신랑 李殷晟은 신학문을 더 배우고 싶어 시골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몰래 大邱師範에 입학원서를 냈고, 1936년에는 고향인 木川국민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忠南지역에서 단 2명만이 甲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았을만큼 우수한 국민학교 교사였던 李殷晟은 3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일본 유학에 올랐다.

東京物理學校 고등사범과 이화학부를 1942년에 마친 그는 곧 귀국하여 교직에 올랐다. 大邱 啓星中(1942~43), 京畿中(1943~1950) 교사를 거쳐 天安工高(1952~1955)에서는 교감을 맡았고 大田 高 교감(1955~1956)을 거쳐 1956년 5월에 처음으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公州師大 전임강사로 시작된 그의 교수 생활은 1964년 仁荷大 응용물리학과로 옮겨 1981년 봄 정년퇴임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후에도 仁荷大의 초빙교수로 또는 여러 대학의 강사로 계속되었다. 특히 1980년 전후부터는 科學史 강의를 맡아 주로 천문학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李殷晟교수가 남긴 업적으로는 셋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둘째로는 그의 전통 曆算學에 대한 끈질긴 연구와 그 성과를 들 수 있다. 특히 李교수는 俞景老·玄正峻교수와 함께 世宗代의 천문학서 <七政算>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번역해 놓았다. 1973년과 1974년에 각각 출간된 <七政算>의 內篇·外篇은 곧 李교수를 천문학사에 완전히 몰입케 해준 계기가 되었다.

李교수의 셋째 공헌은 옛 해시계(日晷)의 연구와 제작에 있다. 그는 한국과학사학회가 주관했던 과학사유물조사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가 復元한 世宗代의 해시계 仰釜日晷는 지금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서울 洪陵), 世宗大, 仁荷大, 경기도학생과학관, 驪州의 英陵 등에 설치돼 있다.

<七政算>에 주석을 붙이기 바쁘던 1973년쯤 李교수는 中山茂의 문고판 <占星術>을 번역하기도 했다. 번역판에 그가 써넣은 것처럼 그 번역을 권고받은 것은 宋相庸교수로부터였고, 그 권고에 李교수는 처음 당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이미 科學史에 깊이 빠지고 있었던 李교수는 어쩔 수 없이 이 권고에 응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의 曆算學 연구는 1978년 <韓國의 冊曆> 上·下권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1985 년 새로 간행된 것이 <曆法の 原理分析>(正音社)이다.

옛 해시계를 여기 저기 復元해주며 기쁨을 느꼈던 李殷晟교수는 公州 武寧王陵의 誌石에 보이는 날자와 干支에서 옛 百濟人들이 정말로 元嘉曆을 쓰고 있었음을 논증하면서 과학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 그는 1985 년에는 그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銘文을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해시계에서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그것이 바로 17 세기초 昭顯世子가 北京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이리라고 주장했다. 그 평면 해시계에 影針을 복원하여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北京에 맞는 해시계이지 서울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었다.

항상 소박한 옷차림에 꾸밈없는 태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까지 겸손한 말씨를 썼던 李교수는 해시계나 曆法에 관한 것이라면 연구에 불같은 열정을 보이는 그런 학자였다. 70년대로 그와 함께 세종기념관에서 <七政算> 연구에 종사했던 俞景老교수는 그가 한여름에도 얼마나 깨끗한 태도로 연구에 임하고 있었던가를 몇 번이나 회고한 일이 있다. 또 李교수의 다섯째 딸 京南씨는 85 년 1 월의 큰 수술후에도 그가 시력장애로 고생하면서도 책상앞에 앉아 책과 씨름하는 모습에 눈물겨웠다고 회상한다.

고향집에 자주 내려갔던 李교수는 그때마다 늘 6 시반 기차를 이용할 정도로 부지런했다. 그는 시간을 아껴 썼고 그에 못지 않게 절약하는 생활을 지켰다. 그가 8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운명 2개월쯤 전 마지막으로 高大부속 구로병원에 입원하려 갈 때에도 병든 몸을 이끌고 버스와 전철을 타올 정도였고 운명하기 이틀전에는 장례비로 준비해두었던 저금통장을 가족에게 넘겨줄만큼 철저하게 준비성있는 사람이었다.

1984년 10월 한국과학사학회 회장에 선출된 李殷晟교수는 아마 기분이 썩 좋았던 모양이다. 仁荷大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또 <韓國의 冊曆>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1978년만큼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해 연말 朴益洙 전회장의 출판기념회에 축사를 맡기로 했던 李교수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어느 젊은 남녀의 부축을 받고 안색이 노래져서 무역회관에 들어섰다. 仁荷大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會賢洞지하도에서 쓰러졌던 것이다.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한채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겨우 부축해 따뜻한 회의장 뒷편 커튼 뒤에 눕혀 놓자 李교수는 심한 구토증세를 보였다. 俞景老교수와 나는 급히 소방차를 불러 경적을 울리며 高大 海化동병원에 그를 입원시켰고 그것이 그의 투병생활 시작이었다.

그후 李교수는 수술, 그리고 회복기를 거쳐 다시 우리들 앞에 거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1986년 6월초의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분과회의 때 그는 회의장인 崇田대로 오지 못한채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운명 3일전 俞景老·全相運·宋相庸교수와 함께 貞陵아파트 그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李교수는 바짝마른 모습으로 힘은 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제 회원이 하나 줄게 됐어”라고 말했다. 항상 적극적인 회원의 부족에 안타까와하던 우리들 마음이 허공에서 한번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宋교수와 나는 그의 영정 앞에 향불을 피우고 정능을 떠났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宋교수는 李殷晟교수가 임종직전 가톨릭에 귀의한 것에 대해 뭐라고 토를 달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다섯째 딸 京南씨의 생각처럼 비록 자식들에게 장례를 간소화시켜 주기 위해 가톨릭에 귀의했지만 李교수는 神의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또 어찌 알 수 있을까? 李교수가 연구했던 地平日晷를 가져왔다는 昭顯世子가 가톨릭이었으리라는 역사가들의 해석을 되새겨 보면서 그는 해시계와 종교와의 사이를 넘나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 著書名 및 譯書名

- 天文學概論(1962) : 영지문화사
- 七政算內篇(共譯, 19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七政算外篇(共譯, 1974), "
- 占星術(譯, 1975)
- 韓國의 冊曆(1978) 上·下 : 現代科學新書 93권
- 曆法の 原理分析(1985) : 正音社

2. 論文名

- 「仰釜日晷의 제작」, 『경기과학』 76, 경기학생과학관 간행
- 「해시계의 원리와 그 用法」, 『仁鏡』 83. No. 3
- 「近世韓國의 曆」, 『國學紀要』 1(東方學志 第十九輯 特刊),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78. 9)
- 「17세기 이후의 韓國의 曆」, 『第 1 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78. 2. 14)
- 「해시계의 歷史와 그 원리」, 『東方學志』 제三十三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2. 10)
- 「韓國의 日食記錄의 科學的 處理」,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 권 제 1 호(1980. 12)
- 「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 『東方學志』,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4. 9)
- 「大理石製新法地平日晷와 昭顯世子」, 『東方學志』(第四十六, 四十七, 四十八合輯),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6.)